



내가 그대들의 방과후라네!

한양대학교 노동조합

노동자의 행복과 보람
그리고 상호 존중의 제19대 한대노조

제19-002호

2019. 9. 9.

Tel. 02-2220-1600~1

Fax. 02-2220-1602

URL. <http://labor.hanyang.ac.kr>

Email. nojo@hanyang.ac.kr

직무군제도 도입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난 2019년 9월 3일(화)과 4일(수) ERICA캠퍼스와 서울캠퍼스에서 각각 직무군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많은 직원들이 참석하여 인사팀의 안을 듣고 예정보다 긴 시간동안 날카로운 질의와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합은 공청회에 참여한 직원들로부터 직무군제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9월 5일(목)에는 ERICA캠퍼스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취합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사팀의 RC행정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아 전체 직원의 30%이상을 차지하는 RC행정팀 직원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인사팀은 첫 날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단과대학 최일선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직무군제의 실행이 요원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제시된 직무군제 체계에 대해 대다수의 직원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직무군 안에 편성된 세부업무들이 과연 같이 묶일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과 같은 팀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직무군제도 안에 편성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하는 점이다.

셋째, 인사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새 직무군제가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불분명하고 공정하지 않은 캠퍼스간 전보 원칙, 잦은 부서 이동 또는 한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는 불균형 등 지금까지 제기됐던 문제들을 직무군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직원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다.

첫 공청회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2020년 1월 전보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대학은 특정 시점을 목표로 무리하게 시행하기 보다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대한 많은 직원들이 새로운 제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설정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조합은 앞으로 직무군 제도에 대한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여 인사팀에 전달하고 아울러 개선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직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면 업무상 혼란은 물론이거니와 대학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업무 효율성도 낮아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대 노조위원장-총장 면담

9월 6일(금) 오후 1시 30분에 총장실에서 위원장과 총장의 간담회가 있었다. 조합은 사무국장이, 대학은 총무처장과 인사팀장이 배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총장은 대학이 현재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면서 조합의 지원을 당부하였다. 이에 위원장은 학교 발전과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노사가 따로 없음을 강조하고 총장과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앞서 9월 4일(수)에는 총무처장, 인사팀장, 총무팀장이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원장 취임을 축하하였다. 덕담이 오가는 분위기에서 양측은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자주 만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약속하였다.